

고용노동부 원주시청, 관내 골프장운영업 대상 '화물자동차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간담회 개최

- 최근 화물자동차 기인 재해 다수 발생에 따른 특별관리업종 지정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원주시청은 최근 원주 및 횡성 지역 사업장에서 화물자동차로 인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골프장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해 예방 특별 간담회 및 교육을 3월 20일(금) 14시부터 16시까지 원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화물자동차는 건설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범용 하역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내 특정 업종에서 화물자동차에 기인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에는 관내 골프장 운영업에서 트럭 적재함 위에서 암롤 박스로 쓰레기를 던지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원주시청은 물류·유통업과 함께 골프장 운영업을 '특별관리업종'으로 선정하고, 동종 및 유사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간담회에는 관내 골프장 운영업 15개소의 안전 업무 담당자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추진 내용 및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해·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점검

각 사업장은 간담회 참석 전, 차량의 이동 경로와 지게차 등 타 기인물 혼재 여부 등 주변 작업환경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 및 제출을 완료하였다.

■ 고위험요인 사례 공유 및 안전 교육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의 교육과 연계하여, 사전에 취합된 점검표 내용 중 고위험 요인과 실제 재해 사례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안전 조치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필수 안전 수칙 준수 지도

차량 이동 경로와 근로자 보행 통로의 명확한 구분, 하역 작업 시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운전석 이탈 시 시동 끄기 및 주차 브레이크 체결 등 5대 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수칙 이행을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 원주시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내 골프장 운영업체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진하 지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에서 화물자동차 기인으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골프장운영업을 포함하여 화물자동차를 다수 사용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 재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조대인 (033-769-0820)
		담당자	근로감독관	이정률 (033-769-0826)

붙임1

관련사진

별도 송부